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이스턴마린(주)

EASTERN MARINE SERVICE CO., LTD.



글 _ 조현우
부산대학교 학생기자

선용품산업의 선두주자로 성장한 이스턴마린

선용품이란 식료품·연료·생활용품·수리용 부품 등 선박에서 사용되는 각종 물건들을 아우르는 용어로, 선박용 물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선용품의 종류는 4만 여종에 이른다. 선용품산업은 위에 설명한 선용품을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현재 세계 선용품 시장의 매출 규모는 연간 약 4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용품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유망 항만서비스산업이다. 항만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선박의 기항증가와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발전으로 연결된다. 특히 부산항의 처리 물동량은 2018년도에 약 2166만 TEU(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로, 컨테이너선이나 컨테이너 부두 등에서 주로 쓰임)로써,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을만큼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인 선용품산업은 세계 6위 규모 부산항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10월 1일에 설립된 이스턴마린은 선용품공급업, 무역업, 해운대리점업, 선박수리업,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항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 85,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에 본사를 두고 국내 동종 기업 2천여 개의 업체들 중에서 기업 역량, 경쟁력, 성장잠재력, 매출규모, 직원복지 등 모든 면에서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탄탄한 기업으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했다. 이스턴마린은 최고 경영자인 김영덕 회장이 오랜 기간 현장 실무와 이론을 연구하고 정교한 시장분석과 세밀한 고객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45세에 창업한 이후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 직원의 복리증진 및 투명경영을 통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이스턴마린은 창립 후 17여년 동안 최고경영자와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외국 무역선, 여객선 및 원양 어선 등 각종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등 종합적인 항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항만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오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경영을 해오고 있는 항만서비스산업의 선도기업이다. 더욱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성실과 신용, 끊임없는 경영혁신 등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상의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스턴마린

이스턴마린은 신속, 정확, 안전 그리고 저가격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경영철학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숙련된 우수인력 확보, 효율

SLOGAN

HIGH QUALITY,
BEST PRICE & SERVICES



이스턴마린(주)
김영득 회장

적인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최첨단 장비 및 운송 차량 보유, 최신 시설의 보세창고, 다양한 품목과 저렴한 가격유지 등 지속적인 경영 혁신으로 유망 강소기업 반열에 올랐으며, 항만 종합서비스 전문 업체로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과의 국제 경쟁에서도 독보적인 핵심역량을 구축하였다.

또 이스턴마린은 여러 가지 항만서비스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이 중에서 선용품공급 분야가 주력 분야이다. 선용품공급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력들이 고품질의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 정확하게 주야 구분 없이 외국무역선, 여객선 및 원양어선 등 각종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함으로써, 지금은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으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이스턴마린은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참고 땀 흘리며 노력한 결과, 부산광역시로부터 4회 연속 항만물류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7년 제44회 무역의 날에는 '수출탑'을 수상하였으며, 2013년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경영자 대상" 수상, 2015년 제20회 바다의 날에는 "석탑산업훈장" 수훈, 2017년 부산광역시의 선용품우수기업 선정, 2017년 12월에는 "혁신 강소기업 경영대상" 수상, 2019년 3월에는 부산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다.

바다를 너머 더 큰 세계 시장을 바라보는 이스턴마린

국내에서는 이미 동종 업계 최상위권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 이스턴마린은 국내 시장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 지금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 성실과 신용, 경영혁신 등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을 통하여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회사 규모, 재무구조, 노사 관계, 미래 비전 측면에서 회사를 유수의 외국기업과 비교하여도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을 만큼 탄탄한 기반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지난 2016년은 대한민국의 해양산업에 있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최대 위기를 맞은 해였다. 해운 및 조선업의 장기 불황국면에서 설상가상으로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한진 해운의 파산까지 더해지면서 물류 대란을 초래했고, 그 여파로 많은 항만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매주 20척 가량의 국내 항만을 드나들던 한진해운 선박의 운항마저 끊기면서 다른 항만산업체들의 매출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 관계 기관과 항만 산업계는 국내 해양산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나는 등 이제는 점차 위기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되찾아 가고 있다. 하지만, 해운경기의 장기부진, 국내 경기의 침체, 세계 경기의 회복세 지연 등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득 회장은 '지금 국내 해운항만산업 전반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며, 정부에서 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과 공공선박의 조기 발주를 통한 조선업 지원, 크루즈와 마리나에 대한 투자확대 등 해운산업의 종합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김영득 회장은 여기에 더해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항만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해양산업계에서도 구성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외형성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신기술 개발, 해외 시장 개척, 유통구조의 혁신,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해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역량을 집중하여 온 힘을 다해 뚝다면 반드시 이러한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스턴마린을 시작으로 한국 항만산업 전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김영득 회장

김영득 회장은 한국의 항만산업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이스턴마린 뿐만 아니라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와 한국선용품산업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스턴마린을 2천 여개의 동종 기업들 중 최상위권에 올려놓은 김영득 회장이 한국선용품산업협회의 수장자리 그리고 특히 작년부터는 항만연관산업 정책연구 및 제안, 종사자들의 권익향상,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7개 협회, 503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의 초대 수장자리를 맡으며 대한민국의 선용품 산업분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선용품산업협회는 2016년 10월 세계에서 44번째로 세계선용품협회(SSA)의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세계선용품협회는 1955년에 설립되었으며, 주 사무소는 런던에 있고, 세계 44개국(한국,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북한 등)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그 외에 51개국이 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총 95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선용품 산업 관련 국제단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해운항만선진국들이 이미 가입하고 있는 세계선용품협회(SSA, International Shippers & Services Association)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선용품산업이 성장 발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정회원이 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 선용품 공급업체들의 마케팅 활동이 예전보다 쉬워지고, 국제 선용품 시장의 최신 동향 파악과 외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우리 선용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국가의 위상이 높아짐으로 인해 우리 선용품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작년에는 한국선용품산업협회가 "2019년 ISSA 총회"를 부산에 유치함으로써, 국내 선용품 산업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쾌거를 이루어 내기도 했다. 세계선용품협회 총회는 세계 각국의 대표단과 주요 선용품 관계자 약 400명이 참석하여 세계 선용품 산업의 발전방안 논



의와 선용품 전시회 개최, 상호 정보교류 등 세계 선용품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선용품 관련 국제행사로, 김영득 회장은 금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최되는 세계선용품협회 부산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우리나라 선용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국제적 위상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 항만산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스턴마린은 국내 유수의 대학들과 교류하여 산학의 상생 발전을 추구하는 역할도 도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은 해운항만산업을 기반으로 지금의 모습까지 발전했지만 정작 해운항만산업 분야에서 젊은 인재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며 우수한 인력들이 부산을 떠나면서 전문인력이 부족해지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해운항만분야의 일자리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해운항만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스턴마린은 해양대, 동의대, 동명대, 영산대 등 부산 소재의 대학들과 「산학 협력 MOU」를 체결하고, 상호협력체제 강화, 학생들의 취업 및 실습기회 제공 및 대학의 연구자료 및 경영정보의 활용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산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긍정의 힘을 믿어라. 이스턴마린의 철학

김영득 회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객 감동 경영, 인간애와 친화력을 기반으로 한 인재 제일주의, 도전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지속적인 혁신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그는 '긍정의 힘'을 믿으며, 긍정의 마인드는 기적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는 항상 '하면 된다' 라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행동으로 옮겨 왔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의 목표는 대부분 이루어졌다.

김영득 회장은 이러한 긍정의 힘을 믿기에 앞서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라" 라고 운을 떼며, 일단 목표를 정하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늘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못 이룰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항상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평소 거기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배양과 적합한 소양을 갖추는 등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목표를 설정하고 창의성과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도전을 거듭해 나간다면 그 목표가 멀지 않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늘 긍정적인 메시지를 외친다.

명확한 목표와 합당한 노력. 그리고 긍정. 김영득 회장이 그린 인생의 지도와 함께 넓은 바다를 가르고 나아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이스턴마린의 모습을 기대해본다.